

# 湯顯祖와 公安派\*

金 學 主\*\*

## 1. 緒 論

明代는 흔히 復古主義가 그 文學의 主流를 이루었던 시대라 말한다. 실상 明代로 들어오면서 楊維禎(1296~1370)·林鴻(1383 전후)·高棅(1350~1423)·李東陽(1447~1516) 등 詩文의 大家들이 모두 復古主義的인 文學論을 내세웠었다. 이들에 의하여 대체로 文章은 秦漢을 본받고 詩는 盛唐을 배워야만 한다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뒤이어 李夢陽(1472~1529)·何景明(1482~1522)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前七子(徐禎卿·邊貢·王廷相·康海·王九思 5人 포함)가 나와 “文必秦漢, 詩必盛唐”의 주장을 내세우며 擬古主義的인 文學手法를 내세워 復古主義는 明一代를 風靡하게 된다.

뒤이어 嘉靖年間(1522~1566)에는 다시 李攀龍(1541~1570)·王世貞(1526~1590)을 중심으로 하는 後七子(謝榛·宗臣·梁有譽·徐中行·吳國倫 五人 포함)가 나와 다시 “文必西漢, 詩必盛唐”의 復古主義를 盛行시켜 擬古主義는 明代 傳統文學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었다.

이러한 明代의 末葉에 袁宏道(1568~1610)의 兄弟인 袁宗道(1560~1600)·袁中道(1570~1623)의 三袁을 中心으로 하는 公安派가 나와 본격적으로 擬古主義的인 文學方法을 반대하고 個性的인 文學創作을 주장하여 明文學史의 末尾를 장식하였다. 이들에 이어 鍾惺(1573~1624)·譚元春(1586~1636?) 등을 중심으로 하는 竟陵派도 나왔으나, 袁宏道의 文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大 人文大 教授

學論에 약간의 修正을 가한 것일 따름이었다. 公安派의 文學論은 擬古主義的인 文學이 主流를 이루어 온 明代의 末葉에 나온 것이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고, 또 많은 文學研究家들의 重視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公安派가 明代에 있어 最初의 反復古的인 文論을 提唱한 것도 아니고, 惟一한 反復古論者인 것도 아니다. 明代文學은 처음부터 復古主義가 그 主流를 이루어 오기는 하였지만, 反復古의 흐름 또한 한 시도 끊인 적은 없었다. 그리고 公安派의 文學論도 이러한 反復古의 흐름 속에서 몇몇 個性的인 文人들에게 直接 또는 間接으로 營養을 취하여 成長한 것이다. 郭紹虞의 <中國文學批評史>를 보면 公安派의 主張이 形成됨에 있어서, 첫째 思想界의 關係에 있어서는 李贄(1527~1602)와 焦竑(1541~1620)의 영향이 제일 크고, 둘째 戲曲家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徐渭(1521~1593)와 湯顯祖(1550~1617)의 영향이 제일 깊으며, 셋째 詩人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于慎行(1545~1607)·公禱(1580 前後) 諸人の 이론과 作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하였다.<sup>1)</sup>

여기에서의 主題人物인 湯顯祖는 <牡丹亭>(一名<還魂記>)을 비롯하여 <紫釵記>·<南柯記>·<邯鄲記> 등 明代 傳奇를 대표할 작품을 남기어 郭紹虞도 戲曲家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2,200首 이상의<sup>2)</sup> 詩文과 賦를 남기고 있고 일찍부터 詩文으로 文名이 알려졌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젊었을 적의 文集인 <紅泉逸草>·<雍藻>(今佚)·<問棘瑯草>와 30歲 이후의 詩文을 모은 <玉茗堂集>이 있는데, 徐朔方에 의하여 1981년에 <湯顯祖詩文集> 上·下로 校正 整理 合刊되었다(上海古籍出版社刊). 따라서 湯顯祖의 公安派에 대한 영향은 戲曲家로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廣汎한 면에서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年輩도 徐渭나 李贄처럼 모든 사람이 注意하는 사람들 보다는도 湯顯祖가 袁宏道에 훨씬 가깝다. 이 小論은 湯顯祖의 文學論이나 文學作品이 公安派의 文學理論에 일

1) 香港 宏智書局 刊本 p. 348 “公安派的 前驅與羽翼”.

2) 徐朔方 箋校 <湯顯祖詩文集>(上海古籍)의 統計에 의거.

마나 接近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영향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가 다시 한번 討究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 2. 明代 反復古主義의 흐름과 公安派 文學論

### 가) 反復古主義의 흐름

李夢陽·何景明을 중심으로 하는 復古運動은 弘治年間(1488~1505)에 시작되어 正德(1506~1521)·嘉靖(1522~1566)年間に 이르러는 온 세상을 휩쓸어 擬古는 당연한 文學方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런 潮流 속에서도 먼저 <沙溪集>을 남긴 孫緒(1514 前後)가 나와 復古論을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王慎中(1509~1559)이 나와 특히 歐陽修·曾鞏 등의 古文을 중시하며 復古風潮에 反旗를 들었다.<sup>3)</sup> 그리고 唐宋派의 領袖로 指目되는 唐順之(1507~1560)는 宋 大家들을 존중하면서 擬古를 반대하고 胸臆을 자신의 뜻대로 써낼 것을 주장하였다.<sup>4)</sup> 그의 文學論은 이미 公安派와 相通되는 점이 많이 발견될 정도이다. 그의 영향으로 妹夫인 <具茨集>을 남긴 王立道(1510~1547)와 <八家文鈔>의 編者로 유명한 茅坤(1512~1601) 등도 擬古主義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들보다 나이는 많지마는 王慎中·唐順之의 反復古가 前七子를 목표로 했던데 비하여 주로 後七子인 王世貞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反復古에 나섰던 사람으로 歸有光(1506~1571)이 있다. 그는 字가 熙甫이고 號가 震川인데, 李攀龍이나 王世貞보다도 나이가 많으나 晩年에 가서는 이들 後七子の 復古主義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는 項思堯文集序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의 이른바 글이란 말하기가 어렵다. 古人의 學問은 공부하지도 않고서 구차히 한 두 사람의 당령되고 용렬한 사람을 모시어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 다

3) 王慎中 再上顧未齋書(<尊巖集> 15) 및 <明史> 文苑傳 참조.

4) 唐順之 <荊川集> 및 <文編> 참고.

투어 附和하면서 前人들을 욕하고 있다. 韓愈는 말하기를 ‘李白과 杜甫의 글이 있어, 光燄이 만 길이나 뻗어있는데, 여러 아이들은 어리석어 어째서 일부러 비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네. 개미들이 큰 나무 흔들려 하지마는, 가소롭게도 자기 능력은 헤아리지 못한 것이지.’ 문장은 宋·元의 여러 名家들에 이르러서도 그 능력이 수천년 이상을 뒤쫓아가 함께 겨룰만한 정도인데, 세상에서는 바로 개미 같은 존재들이 이를 흔들려 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바로 한 두 명의 망령되고 응렬한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sup>5)</sup>

그도 歐陽修·曾鞏의 문장을 推崇하여 唐宋派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마는, “文章은 天地의 元氣여서, 이를 터득한 사람은 그 氣가 곧아서 天地와 同流가 된다.”<sup>6)</sup>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文學理論을 전개하여, 특히 후세 古文에 그가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뿐 아니라 公安派의 文學論은 歸有光으로부터 본격적으로 形成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 徐渭(1521~1593)·李贄(1527~1602)·焦竑(1541~1626)·湯顯祖(1550~1617) 등의 反復古主義者들이 나와 자기 나름의 文學理論을 전개시킴으로써 마침내 公安派를 이룩하게 한다.

徐渭는 字가 文長이며 <四聲猿> 雜劇과 함께 <南詞叙錄>이란 曲論書를 남기어 曲家로 알려지고 있다. 長壽하면서도 一生을 發狂도 하고 自戕도 하며 독특하게 산 奇人으로, 書畫와 詩文도 잘하였다. 詩文集으로는 <徐文長集> 및 <逸稿> 등이 있으며, 그의 文學은 袁宏道가 喜逢梅季豹 시에서

“徐渭饒臯才，身卑道不遇。”<sup>7)</sup>

5) 蓋今世之所謂文者，難言矣。未始爲古人之學，而苟得一二妄庸人，爲之巨子，爭附和之，以詆誹前人。韓文公云…『李杜文章在，光燄萬丈長，不知羣兒愚，那用故謗傷，蚍蜉撼大樹，可笑不自量』。文章至於宋元諸名家，其力足以追數千載之上，而與之頡頏，而世直以蚍蜉撼之，可悲也。無乃一二妄庸人爲之巨子，以倡道之歟？(震川集二)

6) 項思堯文集序：“文章天地之元氣，得之者其氣直，與天地同流。”

7) <袁中郎全集> 詩集.

라 읊었을 정도로 三袁의 尊崇을 받았다.

李贄는 字가 卓吾인데, 유명한 當代의 怪人이며 三袁의 스승이다. 郭紹虞가 그와 公安派의 관계를 특히 思想面에서 把握하려 한 것은, 그가 王陽明學派 중의 泰州學派의 別傳의 인물로 一般的인 習俗이나 禮規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가 公安派의 文學思想 形成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泰州學派는 王艮(心齋)에게서 비롯되어 一傳하여 徐樾(波石)에 이르고, 再傳하여 顏鈞(山農)에 이르고, 三傳하여 羅汝芳(近溪)·何心隱에 이르고, 四傳하여 焦竑·周汝登(海門)에 이르고, 五傳하여 陶望齡(石簣)에 이르고, 그 別傳으로 李贄가 있다.<sup>8)</sup> 이 一派의 思想은 뒤로 오면서 더욱 狂肆해져서, 모든 既存의 規律이나 慣習으로부터 벗어나 自由로우려 하였다. 袁宏道는 젊어서 이 學派의 李贄에게 師事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學派의 管志道(1536~1608, 號 東溟)·潘士藻(1539~1602, 號 雪松)·陶望齡(?~1609)·焦竑(1541~1620) 등 과도 師友 관계를 맺었었다. 따라서 그가 思想的으로 泰州學派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李贄에게는 <焚書>·<藏書>·<史論> 등의 著書와 <溫陵集>이 있는데, 小說 戲曲을 증시하고 擬古를 반대하며 個性的인 文學을 주장한 점이 公安派에 가까워 사람들의 注意를 받고 있다. 그는 眞人の 眞心이야말로 바로 童心임을 주장한 童心說(<焚書> 三)에서

“문장을 이루지 않는 시더란 없고, 문장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란 없으며, 일정한 格式의 문장을 創制하였을 때 문장이 아닌 경우란 없는 것이다. 詩는 어찌 반드시 옛것을 본 받아야만 하겠는가? 글은 어찌 반드시 先秦이어야만 하겠는가!”<sup>9)</sup>

고 주장하고 있다.

8) <明儒學案> 下冊 참조.

9) “無時不文, 無人不文, 無一樣創制體格文字而非文者. 詩何必古選! 文何必先秦!”

焦竑은 〈澹園集〉·〈澹園續集〉·〈焦氏筆乘〉 등을 남기고 있는데, 泰州學派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李贄와 함께 그에게도 公安派와 合致되는 文論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있어서 특히 注目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특히 蘇軾의 散文과 白居易의 詩를 崇尚하며<sup>10)</sup> 擬古主義를 반대하였는데, 특히 “性靈”의 주장 같은 것은 中國文學論史上 性靈說의 根源을 보는 듯 하다. 그는

“詩란 다른것이 아니라 사람의 性靈을 寄託하는 것이다. 진실로 그 感이 이르지 아니하면 情이 깊지 않고, 情이 깊지 않으면 驚心動魄하게 세상에 드리워져 멀리까지 행하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sup>11)</sup>

고 하였다. 이 밖에도 〈澹園集〉 卷 12의 與友人論文書 같은데에서도 여러가지 公安派와 符合하는 그의 文學論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年輩도 三袁에 제일가깝고(袁宗道와는 10年 차이) 文論도 더욱 具體化한 湯顯祖가 나왔다. 湯顯祖는 字가 義仍이며, 號는 海若 또는 海若士·若士라 하였고, 淸遠道人이라 自署하기도 하였고, 晩年에는 繭翁이라 自號하였으며, 臨川(江西) 사람이다. 그의 文學論과 文學에 대하여는 다음 節에서 따로 자세히 論述할 예정이다.

三袁 중에서도 말 형인 袁宗道(字 伯修)는 李卓吾나 湯顯祖 처럼 公安派의 先驅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公安派의 領袖는 袁宏道(字 中郎)였으며 막내인 袁中道(字 小修)는 곁에서 적극적으로 작은 형 袁宏道の 文學論에 加勢하며 이를 補充하기도 하였다.

#### 나) 公安派의 文學論

公安派의 文學論은 한 時代의 文學潮流를 돌려 놓은 尙大한 것이어서 간단히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文論의 要點을 정리하면 대략 다

10) 〈澹園續集〉 卷 1 刻蘇長公集序·刻蘇長公外集序 및 〈澹園集〉 卷 15 刻白氏長慶集鈔序 등 참조.

11) 〈澹園集〉 卷 15 雅娛閣集序; “詩非他, 人之性靈之所寄也. 苟其感不至則情不深, 情不深則無以驚心動魄, 垂世而行遠.”

음과 같은 몇 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첫째 ;文學의 時代的인 進化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文學은 時代마다 변화하고, 各 時代의 特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袁宏道는 叙小修詩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文章은 秦漢을 표준삼는다고 하나 秦漢 사람들이 언제 글자마다 六經을 본 받았으며, 詩는 盛唐을 표준삼는다고 하나 唐나라 사람들이 언제 글자마다 漢魏것을 본 받았는가를 전혀 아지 못한다. 秦漢代에 六經을 본 받았다면 어찌 다시 秦漢代의 文章이 있을 것이며, 盛唐代에 漢魏것을 본 받았다면 어찌 다시 盛唐의 詩가 있겠는가? 오직 時代는 升降이 있지만은 法度는 서로 따르지 않는 것이니, 제각기 그 變化를 다하고 제각기 그 趨向을 추궁한다. 그래서 貴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니, 본시 優劣을 論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13)</sup>

그의 歷史的인 進化論은 公安派 文學論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 ;文學에 있어서의 擬古主義를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는 지극히 當然한 文學論인 듯하지만 當時에 있어서는 바로 그 時代 文學潮流의 正面 拒否를 뜻하는 격렬한 주장의 하나였다. 袁宏道는 叙小修詩에서

“詩文은 近代에 이르러 卑賤함이 지극해졌다, 文은 곧 반드시 秦漢을 표준으로 삼으려하고, 詩는 곧 반드시 盛唐에 표준을 두려하는데, 形式을 그대로 본뜨고 흉내냄으로서 모든 作品이 옛것 대로 지어졌다.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답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 곧 다같이 손가락질 하면서 野狐나 같은 사람의 外道라 하였다”<sup>14)</sup>

고 주장하고 있고, 다시 雪濤閣集序에서는

12)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下卷 第二四章 三, 公安·竟陵의文學運動 및 周勛初 <中國文學批評小史> 第六編 第二章 李贄和公安派的創新學說 두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13) <袁中郎全集> 文鈔 叙小修詩; “曾不知文準秦漢矣, 秦漢人曷嘗字字學六經歟; 詩準盛唐矣, 盛唐人曷嘗字字學漢魏歟! 秦漢而學六經, 豈復有秦漢之文; 盛唐而學漢魏, 豈復有盛唐之詩? 唯夫代有升降, 而法不相沿, 各極其變, 各窮其趨, 所以可貴, 原不可以優劣論也.”

14) 上同; 叙小修詩; “蓋詩文, 至近代而卑極矣. 文則必欲準于秦漢, 詩則必欲準于盛唐, 剿襲模擬. 見人有一語不相肖者, 則共指以爲野狐外道.”

“옛날에는 옛날의 時代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時代가 있다. 옛 사람들의 言語의 뒷발자욱을 踏襲하면서 옛 것이라 부른다면 이것은 嚴冬에 여름을 따라 벼웃을 입는거나 같은 일이다.”<sup>15)</sup>

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앞의 時代的인 進化의 認識이 바탕이 되고, 또 뒤에 얘기할 個性的인 文學의 主張들을 뒷받침으로 하여 形成된 思想이다.

세째 ; 오직 性靈을 펴내며 格套에 拘碍받지 말아야 한다. 性靈이란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作者의 個性이나 그 자신의 思想·感情 등을 아울러 일컫는 말인듯 하며, 格套란 復古主義者들이 내세웠던 옛사람들의 글의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의 格式을 의미한다. 袁宏道는 叙小修詩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袁中道)의 발자욱이 이른 곳이 거의 天下의 태반인데, 詩文도 이로 말미암아 날로 진보하였다. 대개 홀로 性靈을 펴내며 格套에 구애를 받지 않은 것이다. 자기의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 아니면 붓을 대려하지도 않았으나, 어떤 때 感情과 境界가 도이면 잠깐 사이에 천마디 말을 물이 동쪽으로 흐르듯 써내어 사람들의 눈을 빼앗았다. 그 사이에는 좋은 곳도 있고 흠이 되는 곳도 있다. 좋은 곳은 스스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흠이 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本色을 지닌 獨自的으로 만든 말이 많다. 그런데 나는 곧 그 흠이 되는 곳을 극히 좋아한다. 그러나 이른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직도 修飾을 가하고 옛것을 본뜬 것이 한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한다. 근대 文人들의 氣韻을 다 떨쳐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sup>16)</sup>

袁宏道는 時代潮流를 拒否하고 나서 자기 文學의 理論的인 根據로서 性靈을 내세워 個性的인 “자기의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면

15) 上同, 雪濤閣集序; “夫古有古之時. 今有今之時. 襲古人語言之迹, 而冒以爲古, 是處嚴冬而襲夏之葛者也.”

16) 上同, 叙小修詩; “足跡所至, 幾半天下, 而詩文亦因之以日進. 大都獨抒性靈, 不拘格套, 非從自己胸臆流出, 不肯下筆. 有時情與境會, 頃刻千言, 如水東注, 令人奪魂. 其間有佳處, 亦有疵處. 佳處自不必言, 即疵處亦多本色獨造語. 然余則極喜其疵處, 而所謂佳者, 尙不能不以粉飾蹈襲爲恨. 以爲未能盡脫近代文人氣習故也.”



안되는” 문학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復古主義者들의 依據였던 文學의 格套는 존재할 餘地도 없게 되는 것이다.

네째 ; 文學은 時代的인 進化面에서 뿐만이 아니라 곳에 따라 環境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變化의 概念을 물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모든 天下의 물건에는 물보다 무늬가 더한 것이 없다. 突然히 나아갔다, 忽然히 꺾어지기도 하며……. 그러므로 天下의 가장 神奇하고 가장 變化하는 것은 물이다. ……그리고 나서 洞庭湖를 전르고 淮海를 지나 震澤을 가로지르고 嚴灘에 배를 띄우며 五泄의 奇勝을 찾고 江海의 奇觀을 두루보며 크고 작은 變化하는 모양을 다 구경하고 나서 天下의 물을 보니 무늬가 아닌 것이 없었다. 京師에서 벼슬 살이를 한 뒤에 문닫고 들어 앉아 思索을 해본 결과 가슴 속이 탁 트이듯이 깨닫는 과가 있었다. 전날에 본 여울져 흐르든 形勢와 소용돌이치고 물결치는 모양이 忽然히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한 뒤에 司馬遷·班固·杜甫·李白·韓愈·歐陽修·蘇洵·蘇軾 諸公의 詩文을 읽어 보니 물의 괴상한 變化를 모두 눈앞에 대하는듯 하였다. 혹은 뭍이어 골짜기를 이루고, 혹은 돌면서 큰 물결을 이루고, 혹은 소리 내면서 샘물을 이루고, 혹은 탁 트여서 타다를 이루고, 혹은 미친듯이 瀑布를 이루고, 혹은 모여서 못을 이루고, 꾸불꾸불 굽이치는게 모두가 물같았다. 그러므로 내가 본 글은 모두가 물이었다.”<sup>17)</sup>

이는 또 叙竹林集에서 “詩를 잘 짓는 사람은 森羅萬象을 스승으로 삼지 先輩를 스승으로 삼지 않는다.”<sup>18)</sup>고 한 自然을 본뜨려는 文學觀에도 통하는 것이다.

다섯째 ; 小說과 戲曲의 文學的인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는 觴政의 十之掌故에서

17) 上同, 游記 文漪堂記 ; “夫天下之物, 莫文于水. 突然而趨, 忽然而折. ……故天下之至奇變者, 水也. ……已而涉洞庭, 渡淮海, 絕震澤, 放舟嚴灘, 探奇五泄 ; 極江海之奇觀, 盡大小之變態, 而後見天下之水, 無非文者. 既官京師, 閉門構思, 胸中浩浩, 若有所觸. 前日所見澎湃之勢, 淵洞淪漣之象, 忽然現前. 然後取遷·固·甫·白·愈·修·洵·軾諸公之編而讀之, 而水之變怪, 無不畢陳于前者. 或束而爲峽, 或廻而爲瀾, 或鳴而爲泉, 或放而爲海, 或狂而爲瀑, 或匯而爲澤, 蜿蜒曲折, 無之非水. 故余所見之文, 皆水也.”

18) 上同, 文鈔 叙竹林集 ; “善爲詩者, 師森羅萬象, 不師先輩.”

“詞에는 柳永·辛棄疾 등이 있고, 樂府에는 董解元·王德信·馬致遠·高明 등이 있으며, 傳奇에는 水滸傳·金瓶梅 등 逸典이 있다.”<sup>19)</sup>

고 하였다. 이는 특히 그들의 스승 李贄의 이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여섯째 ; 民間의 歌曲들도 중시하였다. 袁宏道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의 詩文은 전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중 만에 하나 전하여지는게 있다면 아마도 民間 부인과 아이들이 부르는 擘破玉·打草竿 같은 종류일 것이다. 그것은 들은 것도 없고 아는것도 없는 眞人인 지은것이기 때문에 眞聲이 많은 것이다.”<sup>20)</sup>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銀絲柳·掛枝兒의 종류는 한 글자라도 본뜬것이 있는가?”<sup>21)</sup>

여기에서 文學이란 眞人인 지은 眞聲이어야 한다고 한것도 李贄의 童心說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 이들은 특히 蘇軾과 白居易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蘇軾의 個性에 따른 多樣한 文章의 변화와, 白居易의 꾸밈 없는 輕妙하고도 平俗한 風趣 때문이었다. 袁氏 兄弟들은 蘇軾과 白居易에게서 變化와 個性을 탈견했던듯 하다. 袁宗道는 자기의 書齋를 「白蘇」라 題하고, 자신의 文集을 〈白蘇齋集〉이라 했을 정도이다. 袁宏道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蘇軾에 대하여는

“蘇軾의 詩는 세상에서 나오기도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기도 하며, 굽은 말 가는 말이 모두 玄奧함으로 돌아가니, 恍忽히 怪異하게 變化하지만 感情과 事實이 아닌게 없다. 그의 才能도 뛰어 나지마는 學問과 識見도 두분(李白과 杜甫를 가리킴)의 위로 훨씬 뛰어났다”<sup>22)</sup>

19) 上同, 隨筆 觴政; “詩餘則柳舍人·辛稼軒等, 樂府則董解元·王實甫·馬東籬·高則誠等, 傳奇則水滸傳·金瓶梅等爲逸典.”

20) 上同, 文鈔 叙小修詩; “吾謂今之詩文不傳矣. 其萬一傳者, 或今閭閻婦人孺子所唱擘破玉·打草竿之類, 猶是無聞無識眞人所作, 故多眞聲.”

21) 上同, 尺牘 與江進之書; “今人所唱銀絲柳·掛枝兒之類, 可一字相襲不?”

22) 上同 尺牘 答梅客生開府; “蘇公之詩, 出世入世, 粗言細言, 總歸玄奧, 恍忽變怪, 無非情實. 蓋其才力既高, 而學問識見, 又迥出二公之上.”

하였고, 다시 白居易에 대하여는

“元稹은 가볍고 白居易는 俗되어, 詩가 이루어지는대로 맡겨 두었다.”<sup>23)</sup>

하였다.

이상 열거한 公安派의 文學論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性靈說이라 할 것이다. 性靈의 주장 속에는 이미 文學의 時代的인 進化나 反擬古는 물론 格套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히 변화를 추구한다는 등의 理論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性靈은 小說·戲曲이나 民間歌曲에도 깃들여지는 것이기에 역시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 3. 湯顯祖의 文學論과 文學

#### 가. 文學論

湯顯祖의 文學論 속에도 公安派의 「性靈」에 가까운 주장들이 상당히 발견된다. 앞에 論述한 바와 같이 그에 앞서 이미 焦竑이 詩論에서 「性靈」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文學論에 있어서의 「性靈」의 概念은 오히려 湯顯祖에게서 더욱 具體化하고 있는듯 하다.

그는 張元長嘯雲軒文字序에서 文章에 있어서의 「靈性」을 강조하고 있다.

“천하에는 대체로 열명 중 삼사 명이 靈性을 지니고 있는데, 잘 된 文章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수백명이나 천 명 중에서도 잘 짓는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것은 바로 그들 性에 靈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sup>24)</sup>

여기의 「靈性」이란 “靈氣가 실려있는 本性”을 뜻하는듯 하다.

다시 序丘毛伯稿에서는 文章에 있어서의 「心靈」을 얘기하고 있다.

23) 上同 詩集 七言律 放言效白；“元輕白俗任詩成。”

24) 〈玉茗堂文集〉文之五序；“天下大致十人中三四有靈性，能爲伎巧文章，竟伯什人乃至無名能爲者，則乃其性少靈者與！”

“천하 文章에 生氣가 있게 되는 까닭은 완전히 奇士로 인한 것이다. 士가 奇하면 心이 靈하게 되고, 心이 靈하면 飛動할 수 있게 되며, 飛動할 수 있으면 天地를 오르내리고 古今을 往來하게 되어 屈伸과 長短과 生滅이 如意하게 되며, 그것이 如意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것이 없게 될 것이다.”<sup>25)</sup>

여기의 「心靈」이란 “마음에 靈氣가 실려있는것”을 뜻하는듯 하다. 다음에 靈氣가 있다면 文章을 지어도 時間과 場所를 超越하여 마음대로 움직이며 變化할 수 있는것이라 믿었다.

그는 또 合奇序란 글에서 「自然靈氣」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靈氣」는 文章의 神妙함과 變化의 原動力으로 표현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文章의 妙함은 무엇을 본뜨거나 무엇과 비슷하게 쓰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自然靈氣가 황홀히 찾아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르게 되려는, 怪異하고 奇特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26)</sup>

「自然靈氣」가 있는 속에 擬古主義는 존재할 餘地도 없게 되며, 文章의 神妙함은 모든 格式을 超越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는 같은 글에서 뒤이어 蘇軾과 米芾의 그림을 들어 「靈氣」로 말미암은 神妙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蘇軾이 그린 다른 나무 그루와 대와 돌 그림은 古今의 그림 格式과 전혀 다른 데도 더욱 奇妙하다. 만약 그림의 格式으로 헤아린다면 거의 合格하지도 못할 것이다.

米芾의 山水와 人物 그림은 별 마음쓰임이 없고 간단히 몇 번 붓질을 할 뿐인데 形像이 완연하다. 바르 마음을 써서 그걸 그리게 하면 더 좋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은 작은 재주지마는 入神하여 證聖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27)</sup>

25) 上同；“天下文章所以有生氣者，全在奇士。士奇則心靈，心靈則能飛動，能飛動則下上天地，來去古今，可以屈伸長短生滅如意，如意則可以無所不如。”

26) 上同；“予謂文章之妙，不在步趨形似之間。自然靈氣，恍惚而來，不思而至，怪怪奇奇，莫可名狀。”

27) 上同；“蘇子瞻畫枯株竹石，絕異古今畫格，乃愈奇妙。若以畫格程之，幾不入格。米家山水人物，不多用意，略施數筆，形像宛然。正使有意爲之，亦復不佳。故夫筆墨小技，可以入神而證聖。”

곧 「靈氣」가 있으면 入神하게 되어, 格式을 따지지 않아도 훌륭한 작품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쓰지 않고 간단히 붓질을 하여도 妙한 작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靈性」이나 「心靈」 또는 「自然靈氣」의 概念은 모두 「靈氣」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오히려 公安派의 「性靈」의 概念보다도 具體的이다.

그는 朱懋忠制義叙에서 또 「氣」와 「機」를 論하고 있는데, 이것도 「靈氣」에 가까운 概念이다.

“天地之化에 通達하는것도 氣와 機에 달렸고, 天地之化를 맺는것도 역시 氣와 機에 달려있다. 化가 이르는 곳엔 氣가 반드시 이르게 되고, 氣가 이르는 곳엔 機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sup>28)</sup>

「氣」가 靈氣라며는 「機」는 靈氣의 작용 같은것인듯 하다. 따라서 좋은 文章을 쓰기 위하여는 먼저 「養氣」를 해야만 하는데 養氣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과 그 특징이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靜으로써 養氣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힌 방 안에 자기도 잊고 짧은 管 안도 크게 여기며, 胎息과 踵息을 하는 사람들 같이 하여, 그 사람은 마음이 깊고 생각이 완전하며, 機는 고요하면서도 돌아서 文章으로 표현되며는 山嶽이 굳어져 있는 것과 같이 되어 비록 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막히어 고요해질것이니, 그래서 仁者의 표현이라고 한다.

動으로써 養氣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萬物의 변화와 함께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事業을 하는 데에 힘써서 이른바 북치고 춤추는 사람 처럼 하여, 그 사람은 마음이 단련되고 생각이 精巧하며, 機는 빛나면서 빨리 움직이며 文章으로 표현되며는 물결이 고였다 흘렀다 하듯 하여 비록 산이 우뚝 서 있다 하더라도 들쭉날쭉할 것이니, 그래서 智者의 표현이라고 한다.”<sup>29)</sup>

28) 〈玉茗堂文集〉六之四 序; “通天地之化者在氣機, 奪天地之化者亦在氣機. 化之所至, 氣必至焉; 氣之所至, 機必至焉.”

29) 上同; “故有以靜養氣者, 規規環室之中, 回回寸管之內, 如所云胎息踵息云者, 此其人心深而思完, 機寂而轉, 發爲文章, 如山嶽之凝正, 雖川流必溶濟也, 故曰仁者之見.

有以動養其氣者, 泠泠物化之間, 齶齶事業之際, 所謂鼓之舞之云者, 此其

그는 〈論語〉 雍也편에서 孔子가

“智者는 動的이고 仁者는 靜的이어서, 仁者는 山을 좋아하고 智者는 水를 좋아한다.”<sup>30)</sup>

고 한 말을 앞에 인용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文章도 사람의 「氣」에 따라 「機」가 고요히 움직이는 사람은 山 처럼 堅實한 글을 쓰게 되고, 「機」가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은 물처럼 변화 많은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自然靈氣」를 말했거니와, 그러한 「養氣」는 自然스럽고도 깨끗한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答凌初成書에서 “歌詩者는 自然而然”해야 된다고 하였거니와<sup>31)</sup>, 賀貽孫(1637 前後)은 〈激書〉 卷2 滌習條에 湯顯祖에 관한 이런 얘기를 싣고 있다. 黃君輔란 사람이 10年의 공부를 한 뒤 科擧를 볼 글공부를 하려고 湯顯祖를 찾아갔다. 湯顯祖는 그가 지은 글을 보고는 내동맹이 치며 “너는 가르칠 수 없다. 네 붓에는 鋒刃이 없고 먹에는 煙雲이 없으며 벼루에는 파도가 없고 종이에선 香澤이 없다. 이 四友에 靈氣가 없으니 애써봤자 소용 없다.”<sup>32)</sup> 하였다. 그래도 가르침을 구하자 그가 이전의 지은 글은 모두 태워버리고 가슴속을 깨끗이 한 뒤 자신이 지은 〈牡丹亭〉을 읽도록하였다. 黃君輔는 한 동안 들어앉아 〈牡丹亭〉을 읽은 뒤에야 “先生님이 가르치시려는 文章의 변화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제야 湯顯祖는 글을 지어오게 하고는 “너의 文章이 이루어졌다. 鋒刃도 갖추어지고 煙雲도 생겨났고 파도도 일고있고 香澤도 들어났다. 이전의 臭惡함이 芳鮮으로 바뀌었다.”<sup>33)</sup>

人心鍊而思精，機照而疾，發爲文章，如水波之淵沛，雖山立必陂隨也，故曰智者之見。”

30) “智者動，仁者靜；仁者樂山，智者樂水。”

31) 〈玉茗堂文集〉尺牘之四

32) “汝不足教也。汝筆無鋒刃，墨無煙雲，硯無波濤，紙無香澤，四友不靈，雖勤無益也。”

33) “汝文成矣。鋒刃具矣，煙雲生矣，波濤動矣，香澤渥矣，疇者臭惡化芳鮮矣。”

고 평하였다. 黃君輔는 그 길로 돌아가 科擧에 及第하고 名士가 되었다 한다. 여기서 알기 쉽게 「靈氣」를 鋒刃·煙雲·波濤·香澤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靈氣」란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아무 데에도 매인 곳이 없어야 걸리워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孫鵬初遂初堂集序란 글에서는 글에 있어서의 「神明」을 얘기하고 있다. 앞에 인용한 俞奇序에서는 「自然靈氣」가 있어야만 「入神」한다고 했으니, 이곳의 「神」과 「明」은 文章을 통해 발휘되는 「靈氣」의 작용을 뜻하는 듯 하다.

“그런데 말이란 사람의 神明이다. 말을 표현해서 전하여지기도 하고 오래까지 전하여지기도 하는것은 神明의 작용인 것이다.”<sup>34)</sup>

그리고는 뒤에 復古運動의 大家인 李夢陽과 何景明의 글을 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李夢陽과 何景明 두 분으로 말한다면 뛰어난게 세상에 이른바 전하여지고 있는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李夢陽은 氣는 강하지만 色이 어두운 흠이 있고, 何景明은 色은 밝지만 氣가 柔弱한 흠이 있다. 神明의 작용을 다 겸하고 있는 이는 없는 것이다.”<sup>35)</sup>

이를 아울러 보며는 「神明」의 「神」은 「神色」을 뜻하는것도 같다. 어떤든 여기의 「氣」가 「靈氣」일 것이니, 「神明」이든 「神色」이든 모두 「靈氣」와는 表裏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答呂姜山이란 글에서는

“무릇 글이란 意·趣·神·色을 爲主로 하는 것이니, 이 네가지가 갖추어졌을 때에야 아름다운 文辭와 빼어난 音樂이 있다면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때에 일일이 九宮四聲을 들볼 수가 있겠는가?”<sup>36)</sup>

34) 〈玉茗堂文集〉文之四 序；“而言者，人之神明。言而有以傳，傳以久，則神明之所際也。”

35) 上同；“大致李氣剛而色不能無晦，何色明而氣不能無柔。神明之際，未有能兼者。”

36) 〈玉茗堂文集〉尺牘之四；“凡文以意趣神色爲主。四者到時，或有麗詞俊音可用。爾時能一一顧宮四聲否？”

이는 戲曲論이기는 하지만 「神·色」 이외에 또 「意·趣」를 얘기하고 있다. 그 시대엔 曲壇에 있어서는 沈璟(〈南九宮譜〉·〈南詞選韻〉의 저자)·王驥德(〈曲律〉의 저자)·呂天成(〈曲品〉의 저자)·臧懋循(〈元曲選〉의 저자) 등의 이른바 曲律派가 主流를 이루던 시대였다. 그 때 그는 「曲律」이란 戲曲을 짓는데 있어서 二次的인 것이고, 그보다도 「意·趣·神·色」이 더욱 重要한 것이라 선언하며 〈牡丹亭〉을 비롯한 〈四夢記〉를 내어 세상 潮流에 挑戰했던 것이다. 戲曲은 詩文보다도 故事가 중요하여 「意」를 내세우고, 또 觀客이나 讀者의 재미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趣」를 내세운 것인듯 하다. 그는 스스로

“나는 여기에서 스스로 曲意를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붓이 잘 가지 않아 韻을 빠트리는 경우도 때때로 있을 것이니, 바로 天下 사람들의 목청을 비틀어 꺾게 만든다 하더라도 상관 없는 것이다.”<sup>37)</sup>

고 과감한 선언을 하고 있다. 이래서 그의 戲曲은 傑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그의 뛰어난 文學理論은 이러한 「靈氣」나 「神」 외에 「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耳伯麻姑遊詩序에서

“세상은 모두가 情이어서, 情이 詩歌를 낳고 神으로써 행하여진다. …… 그 詩가 전하여지는 것은 神과 情이 합쳐 이르렀거나 혹은 한 가지라도 이르렀을 경우이고, 한 가지도 이르지 않았는데도 꼭 전하여 진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sup>38)</sup>

고 「情」을 「神」에 붙여 강조하고 있다. 다시 董解元西廂題辭에서는 이 「情」을 「志」에 연결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書經〉에 ‘詩는 志를 표현한 것이고, 歌는 말을 길게 늘인 것이니, 聲은 길

37) 〈玉茗堂文集〉尺牘之三 答孫侯居; “第在此自謂知曲意者, 筆瀨韻落, 時時有之, 正不妨拗折天下人嗓子.”

38) 上同 文之四 序; “世總爲情, 情生詩歌, 而行于神. ……其詩之傳者, 神情合至, 或一至焉; 一無所至, 而必曰傳者, 亦世所不許也.”



게 늘이는데서 이루어지고, 律은 聲의 調和에서 이루어진다.’ 하였는데, 여기의 志란 바로 情인것이다. 先民들의 이른바 情에서 출발하여 禮義에 머무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아! 만물의 情에는 제 각기 志가 있는 것이다. 董解元은 董解元의 情으로 花月 속에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서 崔鶯鶯과 張生의 情을 추구하였고, 나도 역시 나의 情으로 筆墨이 烟波를 일으키는 그의 글에서 董解元의 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情」이 바로 「志」라면 또 앞의 「意·趣·神·色」의 「意」도 바로 「情」이 될 것이다. 「情」은 바로 작품의 내용도 되는데, 〈牡丹亭〉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는 牡丹亭記題詞에서 이렇게 「情」을 強調하고 있다.

“천하의 여자 중에 情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杜麗娘 같은 이야 있겠는가? 그 사람 꿈을 꾸자 병이 났고, 병이 더해가자 손수 자신의 형용을 그려 세상에 전해놓은 뒤에 죽어버린다. 죽은지 삼년 만에 다시 어두운 저승 속에서도 그가 꿈꾸었던 사람을 찾아내어 살아난다. 杜麗娘 같은 사람이야말로 情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情은 생겨나는 곳을 알 수 없지만, 한 번 생겨나 깊어지려는 산 사람도 죽게 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다해서 죽을 수가 없고 죽었다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은 모두 情의 極致가 아닌 것이다.”<sup>40)</sup>

「情」은 바로 작품의 主題와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湯顯祖는 옛것이나 일정한 格套 같은데 구속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는 그 時代의 復古主義者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 나라(明) 문학은 宋濂에게서 멈춰져서, 方孝孺도 이미 약해졌으며, 李夢陽 이하 王世貞에 이르기까지는 氣力の 強弱과 굵고 가늠이 같지는 않지만

39) 明刊 湯顯祖評〈董解元西廂〉; “書曰;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志也者, 情也. 先民所謂發乎情, 止乎禮義者, 是也. 嗟乎! 萬物之情, 各有其志. 董以董之情而索崔·張之情於花月徘徊之間, 余亦余之情而索董之情於筆墨烟波之際.”

40) 〈玉茗堂文集〉文之六 題詞; “天下女子有情寧有如杜麗娘者乎? 夢其人即病, 病即彌連, 至手畫形容傳於世而後死. 死三年矣, 復能冥莫中求得其所夢者而生. 如麗娘者, 乃可謂之有情人耳. 情不知所起, 一往而深, 生者可以死, 死者可以生. 生而不可與死, 死而不可復生者, 皆非情之至也.”

가짜 글이나 같은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실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실되지 않다면 행하여질 수도 없는 것이다.”<sup>41)</sup>

그는 「眞」을 내세우며 復古主義者들의 글을 “가짜 글”이라 비평하고 있다. 그래도 明初의 宋濂(1310~1381)을 꽤 좋게 본 것은, 그도 復古主義者이긴 하지만 前後七子들과는 달리 그는 文學의 形式 뿐만이 아니라 內容까지도 중시했기 때문이다. 答陸君啓孝廉山陰이란 시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읊고 있다.

“何景明·李夢陽은 神色이 다르고 엷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또 볼게 있겠는가?

國初에 해와 달이 밝았을 적, 宋濂이야말로 大家였었네.”<sup>42)</sup>

湯顯祖가 南京에서 벼슬할 적(1584~1591)에 王世貞은 그 곳 刑部右侍郎이었고 그의 아우 王世懋는 太常少卿으로써 그의 直屬上官이었으나, 그들과 文學的인 見解가 다르다하여 서로 來往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으니,<sup>43)</sup> 그가 얼마나 信念에 굳고 곧은 사람인가 알만하다.

#### 나) 文學의 特徵

湯顯祖가 當時에 존중되던 曲律을 무시하고 자신이 터득한 「意·趣·神·色」만을 살려 〈牡丹亭〉을 비롯한 이른바 〈四夢記〉를 완성하여, 明傳奇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음은 누구나가 다 아는 바이다. 이처럼 일정한 律式이나 格套를 거부하던 그였음으로 詩文에 있어서도 당시 風靡하던 復古主義를 따르지 않은것은 너무나도 當然하다.

41) 〈玉茗堂文集〉尺牘之四 答張夢澤；“我朝文字，宋學士而止。方遜志已弱，李夢陽而下，至琅邪，氣力强弱巨細不同，等賈文爾。第何人能爲其眞？不眞不足行。”

42) 〈玉茗堂文集〉詩之二；“何李色枯薄，餘子定安有？國初開日月，龍門實維斗。”

43) 〈玉茗堂文集〉尺牘之三 復費文孫；“因遂拓落爲詩歌酬接，或以自娛，亦無取世修名之意。故王元美·陳玉叔同仕南都，身爲敬美太常官屬，不與往還。敬美唱爲公宴詩，未能仰答，雖坐才短，亦以意不在是也。”

그의 生涯는 대체로 三期로 나누어 文學과 文學思想의 발전을 더듬어 볼 수 있다. 곧 第一期는 33歲(萬曆 10년, 1582) 이전이며, 33歲에서 49歲(萬曆 26년, 1598)까지가 第二期이고, 第三期은 49歲 이후이다.

그는 與陸景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젊어서 眞德秀의 <文章正宗>을 읽었기 때문에 古文과 詩를 짓기 좋아했으나 그 法은 알지 못했다. 弱冠에 비로서 <文選>을 읽었는데, 六朝의 情이 寄託된 멋진 표현을 좋다고 여겼는데, 역시 그 法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다. 格式을 따라가는 사이 오래되자 思路가 트이는것 같기도 하였으나, 나이는 이미 30을 넘어 40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에 여러번 科擧에 떨어져 이력저락기가 짝이고 氣力이 감퇴하였는데, 南京에 벼슬한 뒤에는 佛·道에 관한 책을 약간 읽으며 世俗을 초월한 세계에 놀았었다. 그리고는 六大家文을 取하여 다시 읽어보니, 宋대 문장은 바로 漢대의 문장이었다. 氣骨은 바뀌었으나 精氣는 가득하고 힘차서 法을 실행하여 機에 통달한 점이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더욱 좋아하게 되어 그 법도를 따르다 보니 思路가 더욱 트이는것 같았는데, 나이는 또한 50이 되고 있었다. 道를 배우다 이루어지는게 없자 글 짓는것을 배웠고, 글 짓는 것을 배우다 이루어어지는게 없자 詩賦를 배웠고, 詩賦를 배우다 이루어지는게 없자 小詞를 배웠고, 小詞를 배우다 이루어지는게 없자 다시 돌아서 道를 공부하게 되었다.”<sup>44)</sup>

여기에서 弱冠에 <文選>을 읽고 六朝의 글을 좋아하던 때가 第一期인데, <紅泉逸草>·<雍藻>·<問棘郵草>에 실린 詩文과 傳奇로는 <紫簫記>가 이 시기에 속하는 작품이다. 大先輩인 徐渭는 특히 <問棘郵草>를 보고는 個性的인 그의 글을 좋아하여 여기에 批釋을 加하였다. 徐渭는 앞머리에 總評을 붙이고 있는데,

“정말 奇才로서, 平生 많이 보지 못한 정도이다. 五言詩는 대략 三謝二陸(謝

44) <玉茗堂文集> 尺牘之四; “僕少讀西山正宗, 因好爲古文詩, 未知其法. 弱冠, 始讀文選. 輒以六朝情寄聲色爲好, 亦無從受其法也. 規模步趨, 久而思路若有通焉. 年已三十四矣. 前以數不第, 展轉頓挫, 氣力已減, 乃求爲南署郎, 得稍讀二氏之書, 從方外遊. 因取六大家文更讀之, 宋文則漢文也. 氣骨代降, 而精氣滿勁. 行其法而通其機, 一也. 則益好而規模步趨之, 思路益若有通焉. 亦已五十矣. 學道無成, 而學爲文. 學文無成, 而學詩賦. 學詩賦無成, 而學小詞. 學小詞無成, 且轉而學道.”

靈運·謝惠連·謝朓·陸機·陸雲)의 작품 같다.”<sup>45)</sup>

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批釋에서는 대부분을 六朝와 初唐·晚唐의 작품에 견주고 있다. 그 스스로도 答張夢譯에서

“저는 17, 8歲 때 韻文을 짓기 좋아해서 이미 騷賦와 六朝 문장에 熟達했었습니다.”<sup>46)</sup>

고 말하고 있다. 특히 七言古詩에서 六朝風의 修辭가 잘 발휘되고 있으나 모두 特定作家를 본뜨거나 흉내낸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傳奇인 <紫簫記>도 結構나 曲律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나 文辭 만은 穠麗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자신은 이 처럼 修辭 만을 추구한 이 무렵의 詩文들을 뒤에 가서는 自娛之作이라 말하고 있다.<sup>47)</sup>

第二期는 “南京에 벼슬한 뒤” 官界에 있었던 시기이다. 이 때의 작품으로는 <玉茗堂全集> 중의 早期 詩文과 <紫釵記>·<牡丹亭>이 있다. 이 때에 와서는 六朝를 버리고 宋代의 古文과 宋詩의 風格을 내세워 盛唐 흉내만 내리는 時代潮流와 맞섰다. 그는 「靈性」 또는 「氣機」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格套를 초월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個性的인 文學을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生死를 超越하는 「情」을 강조한 <牡丹亭>이라는 大作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詩는 이미 一家를 이루어 모두가 그의 獨特한 風格을 인정하고 있고, 序·記·誌·傳 같은 散文은 曾鞏과 王安石에 가깝다고도 하나<sup>48)</sup> 그 特有的의 境地를 開拓하고 있다.

第三期는 벼슬을 그만두고 閒居한 시기이다. 작품으로는 <玉茗堂文集> 속의 後期 詩文과 <南柯記>·<邯鄲記>가 있다. 이 시기의 그의 文章은 거의 完熟한 경지에 이르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淡淡히 直叙한 느

45) “眞奇才也, 生平不多見. 五言詩大約三謝二陸作也.”

46) <玉茗文集> 尺牘之四; “弟十七八歲時, 喜爲韻語, 已熟騷賦六朝之文.”

47) <玉茗文集> 尺牘之六 答羅敬叔; “弟小學詩賦, 祇以自娛, 不似前人用此挾交作聲色也.”

48) 錢謙益 <玉茗堂文集> 序.

낌이 있다. 袁中道가 〈遊居柿錄〉 卷 9에서

“晩年에는 元稹·白居易에 가까워졌으나, 역시 그의 才能은 위대하고 識見은 높아서 가슴 속의 생각을 곧장 표현하며, 盛唐의 格式에 구애받지 않았다. 스스로도 그의 글이 元稹·白居易와 비슷함을 깨달았으나, 그들을 배우려던 것은 아니었다.”<sup>49)</sup>

고 湯顯祖의 文學風格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古文도 風格이 훨씬 淸輕하고 淡泊해졌다. 이미 合奇序나 溪上落花詩題詞 같은 글에서는 靈巧한 晚明小作品文의 前身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의 詩보기로 짧은 七言絶句를 두首 든다.

#### 小姑夜泊

小姑廟 앞에서 밤 배 돌리니  
바람 일며 슬픈 노래 속에 神女가 노니는듯.  
질펀히 내려오는 노을 연지 빛으로 포구를 덮으니  
곱다란 초생달은 여인 눈썹 같은 섬 같네.  
小姑廟前廻夜舟, 風起哀歌神女遊.  
灑灑落霞騰脂港, 娟娟新月蛾眉洲.

#### 重過采石

석양 아래 천리 길 배 저어 돌아오는데  
한 따디 가을 소리 양쪽 언덕 산위에서 나네.  
비단 옷 취해 입은 일이 꿈처럼 아득한데  
밝은 달 어찌 물과 구름 사이에만 한정되랴!  
夕陽千里弄舟還, 一片秋聲兩岸山.  
醉着錦袍如夢杳, 月明何限水雲間.

그리고 第三期에는 傳奇도 文章이나 格式이 完善해져서 結構와 曲律도 잘 맞게 되었다. 그러나 〈邯鄲記〉와 〈南柯記〉가 〈牡丹亭〉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無難해지기는 하였지만, 또 特有의 個性이나 創意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49) “晩年稍入元白, 亦其才大識高, 直寫胸臆, 不拘盛唐三尺. 自覺其有類元白, 非欲學之也.”

## 4. 湯顯祖와 公安派

## 가. 交 遊

公安派의 三袁 兄弟는 모두 직접 湯顯祖와 交遊를 맺고 있었다. 湯顯祖의 〈玉茗堂尺牘〉에는 이들 袁氏 三兄弟에게 각각 보낸 편지가 여러 통 실려있고, 반대로 袁氏 三兄弟의 文集에도 모두 湯顯祖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公安派의 中心人物인 袁宏道와의 來往이 가장 잦았다. 그뿐 아니라 袁氏 兄弟들은 湯顯祖의 爲人과 文學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袁宏道는 喜逢梅季豹시에서 “近來 湯顯祖는 빼어난 佳句가 있다.”<sup>50)</sup> 하면서 徐渭와 함께 文才를 칭송하고 있고, 吳江進之書에서는 “전번에 湯顯祖가 지은 二虞溪上落花詩引子를 보았는데, 매우 妙해서 요새 文人들의 方式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sup>51)</sup> 고 감탄도 하고 있다. 그리고 湯顯祖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났을 적에는 직접 편지를 보내어, 세상 사람들은 까마귀 처럼 걸고 湯顯祖는 고니처럼 희다고 비유하며, 大人은 남의 부림을 받고 살 수 없는것이니 잘 된 것이라고 慰勞하고 있다.<sup>52)</sup> 袁中道도 〈遊居柿錄〉 卷九에서 “(湯顯祖는) 晩年에 元·白에 약간 가까워졌었는데, 역시 그의 才能이 크고 識見이 높아서 곧장 胸臆을 쏟아내어 盛唐의 범도에 구애받지 않은 때문이었다. 스스로 그에게 元·白과 비슷한 곳이 있음을 알았으나 그들을 본뜨려 했던것은 아니다.”<sup>53)</sup> 고 그의 詩를 평하고 있다.

그리고 三袁이 모두 스승으로 받든 李贄(1527~1602)는 湯顯祖도 상당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湯顯祖는 答管東溟에서 그가 晩年에 가장

50) “近來湯顯祖，凌厲有佳句。”(〈袁中郎全集〉).

51) “前見湯海若作二虞溪上落花詩引子，妙甚，脫盡今日文人蹊徑。”(上同)

52) 〈袁中郎全集〉尺牘 湯義仍.

53) “(湯顯祖)晩年稍入元白，亦其才大識高，直寫胸臆，不拘盛唐三尺，自覺其有類元白，非欲學之也。”

존경하였던 스승 達觀과 李贄를 並稱하고 있고,<sup>54)</sup> 李贄가 獄中에서 自殺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嘆卓老란 시<sup>55)</sup>를 지어 그를 哀悼하고 있다. 그리고 李贄가 麻城에서 〈焚書〉를 냈을 적에는 蘇州知府가 된 石崑玉에게 편지를 보내어 〈焚書〉를 한부 구해줄 것을 은근히 당부하고도 있다.<sup>56)</sup>

이 밖에도 湯顯祖와 三袁의 文集을 보면 뒤의 思想背景에서 다시 얘기할 泰州學派에 속하는 管志道·焦竑·陶望齡 등 個性的인 學者들과 다 같이 交遊하였고, 屠隆·王子聲·劉子威 같은 많은 劇作家와 詩人들과도 함께 交遊하였다. 그의 交遊性格을 보더라도 公安派와는 가깝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思想背景

湯顯祖는 嘉靖 41年 그가 13歲때부터 陽明學의 泰州學派에 속하는 학자 羅汝芳을 師事하기 시작하고 있다. 羅汝芳은 號가 近溪이고 泰州學派의 創始者인 王良의 三傳弟子이다. 그는 江西 南城人인데 湯顯祖의 아버지가 그의 學名을 듣고 臨川으로 招請하여 講學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sup>57)</sup> 泰州學派는 이전의 모든 規律을 무시하고 이제까지의 一般的인 모든 觀念을 깨트리고 자유로운 學問을 추구하려는 學派여서, 湯顯祖에게 준 羅汝芳의 영향은 매우 컸을 것이다. 羅汝芳이 “하늘이 처음 나를 낳았을 적에는 다만 어린 아기에 불과했는데, 어린 아기의 마음은 渾然한 天理이다.”<sup>58)</sup>고 말하고 있으니, 李贄의 〈童心說〉도 여기에 뿌리를 둔듯 하다.

54) 〈玉茗堂文集〉尺牘之一 答管東溟；“見以可上人(遠觀)之雄，聽以李百泉(贄)之傑，尋其吐屬，如獲美劍，”

55) 〈玉茗堂文集〉詩之十.

56) 〈玉茗堂文集〉尺牘之一 寄石楚陽蘇州；“有李百泉先生者，見其〈焚書〉，畸人也。肯爲求其書寄我駘蕩否？”

57) 據徐朔方〈湯顯祖年譜〉.

58) 羅汝芳〈羅近溪語錄〉；“天初生我，只是個赤子，赤子之心，渾然天理。”

이 밖에도 그는 泰州學派의 四傳 學者인 焦竑(字 弱侯, 號 澹園, 1541~1620)·管志道(字 東之, 號 東溟, 1536~1608), 五傳의 陶望齡(字 周望, 號 石簣, ?~1609) 등과도 交遊를 맺었었다.<sup>59)</sup> 이들은 모두 思想이 過激한 泰州學派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李贄도 泰州學派에 속하는 別傳의 학자였다. 이들에 의하여 造成된 革新의 분위기나 解放的인 學問方法이 湯顯祖의 文學에 크게 작용했을 것임은 쉽사리 짐작이 가는 일이다.

湯顯祖는 道教와 佛教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 그것은 그의 傳奇〈南柯記〉와 〈邯鄲記〉에 具體化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佛教에 관한 공부가 더 깊었던 듯 하다. 그는 30歲 때(萬曆 7年, 1579) 南京의 清涼寺에서 직접 登壇 說法도 하고 있으며, 40代부터는 當代의 佛學大師인 達觀(紫柏禪師)을 만나 스승처럼 모시며 따르기도 하였다.

이상 湯顯祖의 師事와 交遊를 통해 본 思想的인 배경은 바로 袁宏道와 一致한다. 三袁도 泰州學派에 속하는 過激한 思想家인 李贄를 스승으로 모셨고, 또 그 學派의 管志道·陶望齡·焦竑 등과도 交遊하였는데<sup>60)</sup> 모두 湯顯祖도 交遊한 人物들이다. 그리고 晞談 같은 隨筆에서 袁宏道는 羅汝芳의 말을 여러條目 引用하고 있으니, 그에 대하여도 상당한 존경을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公安派의 革新的인 文學思想은 湯顯祖나 마찬가지로 泰州學派에 思想的인 뿌리를 박고 있음을 알 것이다.

袁宏道の 경우만 보아도 道家와 佛教思想의 영향은 매우 뚜렷하다. 우선 그에게는 〈莊子〉의 大義를 쓴 〈廣莊〉 7편이 있으니<sup>61)</sup>, 그가 얼마나 莊子의 思想을 존중했는가 알 수 있다. 그 밖에 徐漢明에게 보낸 편지 등과 晞談 같은 隨筆에도 道家思想의 영향은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59) 이들 모두 〈玉茗堂文集〉 尺牘 속에 湯顯祖가 보낸 편지가 있음.

60) 〈袁中郎全集〉 尺牘에 袁宏道가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음.

61) 〈袁中郎全集〉 文鈔; 逍遙遊·齊物論·養生主·人間世·德充符·大宗師·應帝王 등 內篇에 대한 7편임.



佛敎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禪宗을 좋아하여 이에 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sup>62)</sup> 中年<sup>63)</sup>이후에는 禪宗에서 淨土로 돌았었다. 金剛證果引·壇經節錄引·題碧空禪人誦法華經引·暑談·喜禪問答 등의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佛敎에 대한 造詣가 깊었는가 알 수 있다. 그는

“儒·佛·道의 이들이 같지 않은것은 가르침 때문이고, 道에 있어서는 같지 않음이 없고 儒·佛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sup>63)</sup>

는 입장에서 儒學 뿐만 아니라 佛·道에 대하여도 많은 공부를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처럼 佛·道思想을 아울러 취하는 것은 湯顯祖나 三袁뿐만 아니라 泰州學派에 속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였다.

다만 그는 當時에 성행했던 方士들의 神仙術이나 長生不死를 추구하는 術法 같은것은 반대하였다. 그의 〈廣莊〉 養生主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聖人是 삶에 있어서 일부러 조치하는것도 없고, 꼭 하려는 것도 없으며, 요행을 바라는 것도 없다. 자연에 맡기어 행동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기다리며, 삶의 자연스러움만 따르지 造化를 거슬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아래로는 삶을 손상시키거나 본성을 해치는 일이 없으며, 위로는 삶을 더 보태고 목숨을 보전 하려는 짓도 하려들지 않는다.”<sup>64)</sup>

그리고 儒·佛·道 본래의 養生論을 논하면서 “삶을 탐하여 養生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논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神仙이나 不老長生の 추구가 용납될 이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은 道敎에도 접근하였던 湯顯祖와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다.

그러나 湯顯祖와 三袁의 交遊나 思想的인 背景은 이들의 文學思想이 서로 비슷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條件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現

62) 〈袁中郎全集〉尺牘 與曹魯川書 등 참조.

63) 〈袁中郎全集〉隨筆 喜禪問答; “儒釋道之不同名者, 教也. 至於道, 無不同也, 無儒釋也.”

64) “聖人之於生也, 無安排, 無取必, 無徼倖. 任天而行, 修身以俟, 順生之自然, 而不與造化者忤. 是故其下無傷生損性之事, 而其上不肯爲生葆命之行.”

實政治나 社會를 보는 태도에는 이들 사이에 차이를 보여준다.

湯顯祖는 萬曆 12年(1584) 35歲때 南京太常寺博士가 된 후로 顧憲成을 중심으로 한 鄒元標·高攀龍·李三才·顧允成 등 東林黨 初期의 人物들과 來往이 잦았다. 東林黨은 理學의 한 流派이면서 政治的인 성격도 띄었던 集團이었다. 그들은 理學의 倫理를 바탕으로 하여 當時의 政治를 비판하고 있었지만, 剛直한 성격의 湯顯祖가 보는 現實政治에 대한 見解와 많은 점에서 相通하였다. 그는 일찌기 文名을 날리어 當時의 首相 張居正이 그의 이름을 듣고 그를 招致하여 자기 아들과 함께 科擧를 보게 하려 하였으나, 湯顯祖가 응하지 않았다 한다.<sup>65)</sup> 그리고 萬曆 19年(1591)에는 時政을 糾彈하는 論輔臣科臣疏를 올렸다가 皇帝의 노여움을 사 徐聞 典史로 流配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萬曆 15, 6年(1587, 8) 大饑饉과 疫病이 전국을 휩쓸었을 적에는 聞北土饑麥無收者·饑·疫·寄問三吳長吏·內弟吳繼文訴家口絕穀有嘆·江西米信·丁亥戊子大饑疫 등의 시를 지었고, 이밖에도 그는 社會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작품을 통하여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袁宏道 兄弟들은 現實的인 관심이 훨씬 희박하다. 아무래도 道家의 無爲와 佛教의 出世思想 등이 그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 5. 結 論

公安派 文學論의 중심은 「性靈論」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性靈은 바로 文學의 時代的인 進化나 작가의 個性, 時代나 地域에 따른 變化 및 反格套 反模擬를 導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湯顯祖의 文學論도 그가 장 두드러진 특징은 文學에 있어서의 靈性 또는 心靈·自然靈氣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袁宏道の 性靈과 매우 비슷한 概念들이나 다만

65) <明史> 卷 230 本傳.

그처럼 具體化되지는 못하였던게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靈性 비슷한 말 이외에도 氣·機나 神·明 같은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文學에 있어서의 작가의 個性이나 反格套를 이끄는 힘을 그처럼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현하였던듯 하다.

어떻든 湯顯祖의 文學論은 本質的으로 公安派와 큰 차이가 없다. 公安派의 先驅者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 자체를 公安派의 인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다만 그의 文學論의 體系가 公安派보다는 散漫하고 자신의 文學觀을 當代의 文學潮流를 바로잡기 위한 主張으로 크게 내세우는 熱意와 끈기가 모자랄 뿐이다. 곧 文學運動면에 있어서는 湯顯祖가 公安派에 뒤지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湯顯祖가 靈性 못지 않게 文學에 있어서의 情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三袁보다도 뛰어난 점이다. 文學이 論理 만을 바탕으로하여 이루어지는 글이 아님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湯顯祖는 “情이 있는 사람에게는 理가 반드시 없을 것이며, 理가 있는 사람에게는 情이 반드시 없을 것이다.”<sup>66)</sup>고 하면서 情과 理는 완전히 별개의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情을 바탕으로 하여

“情으로 말미암아 꿈이 이루어지고, 꿈으로 말미암아 戲曲이 이루어진다.”<sup>67)</sup>

고도 하였다. 곧 情을 근거로 현실을 초월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꿈을 추구하는데서 변화많은 참된 文學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性에는 善도 없고 惡도 없으나 情에는 그것이 있다.”<sup>68)</sup>고도 하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人間的인 特性과 各自의 個性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情에 대한 뚜렷한 認識이 있었기 때문에 當時에 尊崇되던 曲律을 무시하고 자유로이 모든 人間의 格式이나 심지어 死生까지도 초월하여 <牡丹亭>이라는 傳奇의 大

66) <玉茗堂文集> 尺牘之二 寄達觀; “情有者理必無, 理有者情必無.”

67) 上同 尺牘之四 復甘義麓; “因情成夢, 因夢成戲.”

68) 上同; “性無善無惡, 情有之,”

작도 있고, 또 수많은 個性的인 散文과 詩들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곧 創作面에 있어서는 오히려 袁氏兄弟들 보다도 湯顯祖가 더 公安派의 文學論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明代를 통털어 이처럼 反復古的인 입장에서 個性的인 詩와 散文을 쓰고 또 曲壇의 일탄적인 趨勢를 逆行하는 참신한 傳奇를 쓴 작가는 湯顯祖 이외에 또 찾아보기가 힘들 줄 믿는다. 그것은 또 湯顯祖를 이제까지 처럼 주로 劇作家로서만 重視하는데 그치지 않고, 文學論이나 詩 散文 등 여러 角度에서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작가임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